

2011. 10. 25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

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KDI's 40th Anniversary
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:
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

- 기간: 2011년 10월 24(월) ~ 25(화)
- 장소: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(B1)
- 주최: KDI(한국개발연구원)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종합토론

임원혁,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

- 한국은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한 세대 만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했으나, 이와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등 많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음.
- 한국은 한 세대 만에 네 번째로 젊은 국가에서 OECD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국가로 변모할만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했음.

-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그간 당연시 되어온 고속성장에 길들여진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.
 - 이를 반영하듯 정치가들은 고속 성장 목표를 내세우고 실패하기를 반복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음.
- 고성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기대감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.
-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산업화와 선진민주화에 기반할 때에만 기존의 선진국과 달리 4~5%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임.
- 한국사회의 주요 논란 중 하나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, 호주와 같은 선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 - 보편적 복지 또는 선택적 복지라는 정책적 선택은 재정상황과 현실적 필요는 물론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이루어져야 함.

드와이트 퍼킨스,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

- 한국의 고령화 문제, 빈곤 문제 등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.
 - 주기적인 세대교체에 대비해 미래 리더를 양성하고, 고등교육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문화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임.
 - 지식집약적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인구를 흡수함으로써 노년의 빈곤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음.
 - 서비스 및 교육 분야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통한 충분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임.

김기환, 前 KDI 원장

-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은 잘 이루어져 왔지만,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상존하는 많은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 요구됨.
 - 경제정책, 노동, 교육 및 여성인력 등의 사회문제를 비롯한 많은 분야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,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- 한국이 당면한 많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,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.
 - 회의를 주관한 KDI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, 논의된 사안들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후속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람.

배리 아이캔그린, 미국 버클리대학교 교수

- 한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야하며, 동시에 유럽의 강소국은 물론 동유럽 국가보다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회통합투자를 확충해야 함.
- 한국이 교육, 산업, 제도,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, 한국의 구매력 균등(PPP) 환율 기준 1인당 소득은 20년 이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- 한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 2%p 높게 유지된다면(예를 들어, 한국 4.5% vs. 미국 2.5%), 한국의 1인당 GDP는 20년 내에 미국 수준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.
-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, 중년 노동자의 생산성이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수준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조기퇴직이 양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, 생산성 및 실제노동시간에 연계된 임금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, 또한 IT를 서비스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함.

-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공교육 지출은 근본적인 문제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시장원칙에 입각한 교육비 충당방안 모색이 시급히 요구됨.
 - 교육에 소요되는 자원은 증가추세인 반면, 한국정부가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지출수준을 유지할 경우, 민간에서의 교육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.

- 한국은 지난 50년간 선진국 사례를 모방한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으나 한국의 현실적 여건과 제도적 유산이 반영된 독자정책 마련을 촉구함.
 - 영국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(Third Way), 네덜란드의 조합주의(Corporatism), 덴마크의 유연안정성(Flexicurity)을 넘어서는 창조적 정책제안이 요구되는 시점임